

D.H. Lawrence의 자아추구

— (A) Paul의 자아 —

박 정 길 *

I.

소설가로서의 D.H. Lawrence는 생명력을 통한 실존의 자아추구에 남다른 집념을 가지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진력한 생명주의자였으며 그가 즐겨 표방했던 삶의 형태는 The real way of living is to answer to one's wants¹⁾라는 것으로 그는 그의 이같은 사적 교리를 창도함에 거리낌이 없었고 이를 추구함에 있어 — 생이 모자랐던 그런 사람이었다. 세상에 흔히 알려진 것처럼 도착적 성애의 묘사만을 즐겨 다루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생명력의 가식없는 이미지를 추구했으며, H.G. Wells, E.A. Bennett, John Galsworthy 등의 물질주의 작가(Materialist writers)와는 달리 Victoria조의 허위와 가식에 찬 기존의 도덕관에 저항하면서, 혹은 기존 질서의 재편을 역설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자아 충족과 이를 통한 사회개조라는 정신아래 폐허 속에 작은 보금자리(new little habitation among the ruins)²⁾를 그의 소설에서 추구해 나갔다.

그런 의미에서 Lawrence의 소설은 Lawrence 자신의 정신사³⁾이며 20세기 초 영국의 사회사⁴⁾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Lawrence 문학의 저변을 관통해 흐르고 있는 근본적인 motif의 하나는 생명탐구로서, 그가 소설속에 표방한 갖가지 다양한 주제와 얽혀서 미묘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후속하는 소설의 주제를 밝히는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Lawrence에게 있어서 소설가는 「살아 숨쉬는 인간」을 추구해야 하며 등장 인물은 살아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소설은 따라서 「오로지 빛을 발하는 생명을 묘사한 글」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살아 있지 않은 인

* 한국해양대학, 어학연구소장(영문학전공).

1) Aldous Huxley, *The Letters of D.H. Lawrence*(London : Heinemann, 1934), p.95.

2) Philip Freund, *The art of Reading the Novel*(New York : Collier Books, 1966), p.107.

3) Anthony Beal, *D.H. Lawrence*(Edinburgh and London : Oliver and Boyd, 1964), p.37.

4) *Ibid.* Also see F.R. Leavis/*Novelist Chatto and Windus*, 1955), p.151.

간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Lawrence는 믿고 있었다. 1925년 6월에 쓴 그의 몇 편의 소설론은 생명탐구의 장(場)으로서의 소설에 대한 그의 지론(持論)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데⁵⁾, 「소설은 왜 중요한가」라는 그의 논문에서 「살아 있는 것, 살아 있는 인간이어야 한다. 살아 있는 전인적(全人的) 인간(the whole man alive)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⁶⁾라고 전제함으로써 「그 최고의 것이 소설이며」 소설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살아 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소설의 역할을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Lawrence 나름의 소설관의 이면에서 우리는 그의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현실인식을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Lawrence는 현실세계에서의 인간존재의 공허감과 자기소외의 상황을 오늘날의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작품에 나타나 있는 인물묘사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Sons and Lovers*의 Mrs. Morel은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숨어 사는 것」 같은 나날임을 고쳐하는 것이라든가 *The Rainbow*의 Ursula가 오랜 시련을 겪고 난 뒤, 눈앞에 나타난 갱부들을 「파묻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 불과함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장면에서와 같이 생명이 없이 잔해화(殘骸化)한 등장인물은 Lawrence의 문학에서 허다히 발견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소설이 어떤 지평(地平)에서 있으며 현실사회의 인간모습을 어떻게 전하고자 하는가를 알기는 어렵지 않다. *Women in Love*에서 작자의 대변자인 Berkin이 Humanity is a dead Letter⁷⁾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작자 자신의 인간관을 피력한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Lawrence에 있어서 소설가의 사명은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현실적인 생명감의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우리 인간이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가운데 서서히 상실해가고 있는 인간 본연의

5) Keith Sagar, *D.H. Lawrence: A calendar of his works*(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79), p.144. 여기서 Lawrence는 'Art and Morality', 'Morality and the Novel', 'The Novel', 'Why the Novel Matters', 'The Novel and the Feelings'등 다섯편의 essay를 쓰고 있다.

6) D.H. Lawrence, 'Why the Novel Matters' in *Phoenix*(London: Heinemann 1979), p.535.

7) D.H. Lawrence, *Women in Lover*(Harmondworth: Penguin Books, 1974,), p.65이하 Lawrence의 소설은 Penguin판에서 인용함.

생명의 회복을 Lawrence는 소설가로서의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소설은 삶가운데서 살아있는 인간 관계의 변화하는 무지개를 인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완벽한 매개체’⁸⁾여야 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Lawrence에 있어서 삶이란 어떠한 개념의 것이며, 그가 추구한 인생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단지 있는 그대로의 현상적 삶을 낙관적으로 시인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 삶에서 탈피하여 진실된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피상적인 생활방식을 과감히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제가 그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Women in Love*에서 Berkin이 구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보자.

‘But to stare straight at this life that we’ve brought upon ourselves and rejected, absolutely smash up the old idols of ourselves, that we sh’ll never do. You’ve got very badly to want to get rid of the old before anything new will appear even in the self.’⁹⁾

Berkin은 이렇게 해서 현실적 삶을 내버림으로써 Ursula와의 궁극적인 사랑을 빌미로 해서 새로운 세계 즉, 실제의 한가운데를 향해 도약하게 된다. 그것이 곧 그에게 있어서 자기부활이며 생명이었던 것이다. *Sons and Lovers*의 종장에서 주인공 Paul의 담대한 자아추구의 의지가 싹튼이래 *Women in Love*에서 우리는 Lawrence가 자신의 생명의 환상을 Berkin을 통해서 실현시키고 있음을 보게 된다. 즉 현실적인 존재자로서의 자아를 자기부정적으로 뛰어 넘어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진입하고 있는 자아의 실체를 보게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Lawrence문학의 실존적 자아추구의 의지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진다. 현재의 자기를 탈피하여 생명의 저쪽을 향해 나아가는 것, 현재의 자기를 부정하는, 그러면서도 실존재 존재하고자 하는 자아의 추구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Lawrence 문학은 자아추구와 관련하여 이해하려는 시도는 작품속의 인물이 이와 같은 생성과정을 겪고 새로이 자유로운 인간이 되어 그 모습을 나타낼려고 노력할 때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 대한 본래의 자세, 그와 같은 존재로 남고자 하는 실존적 지향은 *Sons and Lovers*에서의 Paul의 의지와 *The Rainbow*에서 보는 Tom,

8) ‘*Morality and the Novel*’ in *Phoenix*, p.532.

9) *Women in Love*, p.59.

Will, ursula에게서, 그리고 *Women in Love*의 Berkin을 위시해서 Lawrence 문학 전반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인자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작품을 대할 때 Lawrence의 주인공들이 참된 자신의 모습을 찾고자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나아가 단편적 존재로서가 아니고 全人的인 존재로서 육체적, 지적, 정신적인 모든 면을 통해서 생명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부단하게 경주하고 있음을 본다. 거기에는 끊임없는 자아추구의 시도가 있고 여러 차례의 패배와 승리가 교차되는 치열한 쟁투가 있다.

Lawrence는 우리가 소설에서 배워야 할 것을, 현재의 자세에서 탈피하여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등장인물의 존재양식에서 추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또 그것을 그의 작품에서 추구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독자가 지녀야 할 근본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는 「소설은 왜 중요한가」¹⁰⁾라는 에세이에서 심지어 이렇게 까지 언급해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d only in to novel are all things given full play, or at least, the may be given full play, when we realise that life itself, and not inert safety, is the reason for living, For out of the full play of all things emerges the only thing that is anything, the wholeness of a man, the wholeness of a woman, man alive and live woman.

따라서 Lawrence의 작품들에서는 주인공이 「살아 있는 全人間」으로서 재 창조되는 과정을 겪고 있음을 보게된다. 이러한 인물의 부활의 체험을 Lawrence 문학의 자아추구의 중핵적인 요소로 간주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Mark Spilka는 「살아 있는 육체 속에 잠자는 인간의 혼의 부활 혹은 파멸이 Lawrence의 전 작품의 주요 주제이며 이 부활로 인해서 Lawrence는 인간존재의 보다 위대한 완전성에의 탈출을 기도한 것이다」¹¹⁾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Sons and Lovers*」, 「*The Rainbow*」, 「*Women in Love*」 등의 소설을 고찰해 본다면 작중인물들의 부활에의 생성과정과 파멸

10) 'Why the Novel Matters', p. 538.

11) Mark Spilka, *The Love Ethic of D.H. Lawrence*(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1955), p.23.

로 향하는 과정을 그들의 존재양식을 통해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또한 오늘날 절실한 문제로 되어 있는 허무주의와 자기소외의 현실상황에서 Lawrence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생명의 세계로 진입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이야말로 Lawrence가 소설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중핵적인 주제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바로 그것이 그의 소설을 빛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필자는 그 요소가 바로 그가 소설속에서 얻고자 하는 끊임없는 생명력의 추구 그것으로 보았다.

그러면, 'D.H.Lawrence의 자아추구' 그것이 과연 그 어떤 모습으로 작가가 이해하는 生命과 만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 우선 *Sons and lovers*에서 Paul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자아를 고찰해 보는 것으로 본론을 전개하여 보기로 한다.

II.

*Sons and Lovers*는 주인공 Paul Morel(이하 Paul)의 삶을 통한 Lawrence의 생의 탐구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全人的 인간으로서 삶의 생성과정이 Paul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음은 곧 Lawrence 자신의 생명력을 통한 자아추구의 의지를 표방하는 과정인 셈이다.

잘 알려진대로 이 소설은 결혼생활에 좌절한 Morel부인이 노동자인 남편에게서 이루지 못한 자신의 꿈을 두 아들에 의해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야심적인 노력이 소설의 1부의 2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술, 전개되고 있다. 「어머니의 아들」로서의 William과 Paul은 어머니의 중산계급적인 궁지와 야심에 찬 삶을 끝까지 추구해간다. 말하자면 세속적인 면에서의 온갖 자기실현을 위한 승화에의 강렬한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의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향하여, 자신의 내부에서 자기부재를 향한 퇴행의 경로를 걷고 있는 결과를 빚고 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 인간의 내부에서 이와 같은 승화와 퇴행의 갈등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는 강력한 실존적 자아 인식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머니와 유지해 온 정신적 교류

를 연인과는 공유하지 못하고 정신과 육체의 분열을 초래하여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마는 William의 경우는 참된 실존은 성립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William이 보여주고 있는 육(肉)의 분열은 Paul의 운명을 암시하는 단 하나의 행로가 되고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다만 그것이 실존적 자아를 생성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음이 William과는 전혀 다른 실존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Morel부인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Paul과의 정신적인 애정을 통해 충족시키고 있고, 연인 Miriam도 육체와 분리된 Paul의 영혼만을 구하기 위해 그를 극단적으로 정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Paul과 어머니의 관계가 정신적 교통으로 포착되어 있고 Miriam과의 관계가 영혼의 교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왜곡된 인간관계가 Paul의 의식에 균열을 초래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어머니의 존재는 Paul에게 있어서 생명의 축(the pivot of his life)과 같은 것으로서 그는 어머니의 애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속박감을 갖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Miriam과의 관계에서 Paul은 정신적 지성과 관념의 차원에 매이게 되고 자기의 성(性)의식에 굴욕감을 품게 된다. 이리하여 Paul은 어머니와 Miriam이 추구하는 삶의 와중에서 영(靈)과 육(肉)의 분열이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져서 본질적으로 William과 같은 곤경을 겪게 되는 것이다.

And in his soul was a feeling of the satisfaction of self sacrifice because he was faithful to her. She loved him first ; he loved her first. And yet it was not enough. His new young life, so strong and imperious, was urged towards something else, It made him mad with restlessness. She saw this. and wished bitterly that Miriam had been a woman who could take this new life of his, and leave her the roots. He fought against his mother almost as he fought against Miriam.¹²⁾

Morel부인과 Miriam이 Paul에게 주는 애정은 결국 그들의 작고 한정된 세계속에 Paul이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12) D.H. Lawrence. *Sons and Lovers*, p.273.

「사랑은 감옥이 아니고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Paul은 말하고 있다. 이것은 어머니와 Miriam의 교양(Intellectualism)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적 사랑의 속박과 그러한 삶의 한계에 대한 Paul의 반발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도 Paul이 자신의 생명추구를 저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이 곧 Paul의 고뇌인 것이다. 그러나 William을 파멸로 몰고간 운명과 Paul이 스스로 결별하는 참된 원인은 그녀들이 구하는 사랑과 삶에 Paul이 끝까지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Sons and Lovers*에서 Paul과 Miriam이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Paul이 가져온 sketch-book을 Miriam이 계속 훑어지게 바라보는 장면이 있다. 여기서 Paul이 하는 말은 그의 예술가 내지 사상가로서의 자각과 삶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Miriam의 「나는 왜 이 그림이 이토록 좋을까」라는 물음에 Paul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It’s because—it’s because there is scarcely any shadow in it ; it’s more shimmery, as if I’d painted the shimmering protoplasm in the leaves and everywhere, and not the stiffness of the shape. That seems dead to me. Only this shimmeriness is the real living. The shape is a dead crust. The shimmer is inside really.’¹³⁾

여기서 the shimmering protoplasm¹⁴⁾이라는 용어는 바로 Lawrence가 말하는 생명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지향하는 유복한 중산계급이든가 교육, 행동지침 따위의 개념은 사실 Paul의 생명에 있어서 단순한 외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참된 인간의 차이는 그러한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내면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Paul의 생각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예술가로서의 Paul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이것이 William에게 강요된 삶에서 Paul의 생각이 멀어져가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가시화할 수 있으며 Paul의 경우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Paul에게 있어서

13) *Ibid.*, p. 189.

14) 그의 소설에서 生命力과 관련한 최초의 논의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의 삶의 방식에 의문을 품고 인간의 내면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곧 어머니가 바라는 행복을 내던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그는 이 때문에 어머니와 긴 토론을 하고 있다. 그가 지향하는 삶은 생명의 충실을 으뜸으로 삼는 삶이며 그것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신조도 일체 불식해 버리는 삶인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속박을 항상 느끼고 있는 Paul에게 있어서 그것은 달성하기 용이한 삶은 또한 아니다.

Lawrence는 이러한 Paul의 어려움과 또한 그의 새로운 지향에 대해서 「인간은 선악의 구별을 자기내면에서 감각적으로 파악하여 자신의 神을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강한 인내심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근본적인 신념에 Paul이 도달하고 있었다」고 작품속에 적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神」이란 말할나위도 없이 앞에서 언급한 「생명의 원형질」과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소설속에서 Paul이 자기의 神을 어떻게 찾아가는가 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Lawrence의 삶의 실존적 자아추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Sons and Lovers*의 첫 부분에는 아주 인상깊은 장면이 있다. Morel부인은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나절에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다. 그것은 그녀가 낳기를 원하지 않았던 아이였다. 그녀는 이미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기가 눈썹을 찡그리며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이 자신과 남편의 닮이라고 생각하고는 우울한 기분이 된다. 그 때 갑자기 그녀는 치밀어 오르는 슬픔을 가누며 애정도 없이 태어난 아기에게 모든 힘을 다해서 「보상」을 다짐하는 것이 그것이다.

Once more she was aware of the sun lying red on the rim of the hill opposite She suddenly held up the child in her hands.

“Look!” she said. “Look, my pretty!”

She thrust the infant forward to the crimson, throbbing sun, almost with relief. She saw him lift his little fist. Then she put him to her bosom again, ashamed for her impulse to give back again whence he came.¹⁵⁾

Alastair Niven¹⁶⁾은 이러한 그녀의 행위를 단순한 사건이라기 보다는 시적

15) *Sons and Lovers*, p.51.

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역시 원죄에 대한 액막이(an exorcism)로서의 의식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Morel 부인의 내심에 사무친 이러한 행동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것은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시적 내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없지 않지만¹⁶⁾, 어쨌든 Morel부인의 이 행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말하자면 만물의 생명의 근원인 태양에 아기를 바친다는 Morel부인의 행위는 그 태양에서 내뿜어지는 생명의 불길을 쏘아 부어 아기를 정화한다는 의식인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그러한 자기 나름의 행위인 정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Paul에 대한 세례인 셈이다.

Morel부인이 자기보다 위대한 그 무엇에 의지하여 한 순간이지만 구원받지 않고서 견디지 못하는 기분이 되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속죄(贖罪)됨을 무의식 중에 느끼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Paul은 처음부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가지 외적 상황에서 탈출하는 자질을 갖추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령 Paul이 경험하는 종교적 체험으로 간주되는 두가지 장면을 통해 그 자질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첫 경험은 역시 저물어가는 태양의 황금빛에 자극되어 시작된다. 태양은 무수한 금빛 파편을 만물에 내뿜어서 구름을 태우고 그 구름은 장미빛에서 어둠으로 바뀐다. 그러자 Paul은 Miriam에게 「나는 암흑이 좋아」라고 말하면서 어둠속에서 대단히 편안한 기분이 된다. 그것이 Miriam에게 공포를 안겨준다. 여기서 Paul이 말하는 어둠의 세계야말로 Morel부인과 Miriam의 정신과 교양 지향적 낮의 세계에 대비되는 또하나의 세계인 것이다.

한낮의 세계에 사는 자기를, 자기부정적으로 죽어가는 것으로 인해 어둠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표면에서 영위하는 삶을 그림자로 인식하여 어둠속에서, 즉 정숙과 무의식속에서 생명의 충족을 찾게 되는 것이다. Paul은 눈 앞에 다가오는 어둠을 전혀 피하지 않고 오히려 나아가 그 속에 덤벼든다.

He felt as if nothing mattered, as if his living were smeared away into the

16) Alastair Niven, *D.H. Lawrence : The Writer and His Work*(Essex : Longman Group LTD., 1980, p.34참조.

cf ; It may be distantly related to an actual happening about which Lawrence's mother talked, but it is realized poetical and symbolically, an initiation rite.

beyond, near and quit lovable. Thes strange, gentle reaching-out to death was new to him... To him now, life seemed a shadow, day a white shadow ; night, and death, and stillness, and inaction, this seemen like being. To be alive, to be urgent and insistent—that was *not-to-be*. The highest of all was to melt out into the darkness and away there, identified whth the great Being.¹⁷⁾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통념상의 죽음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자아의 멸실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그 죽음은 현존의 자기를 초월한 참된 실존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 통로를 거치고 난 후 비로소 인간은 위대한 생명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영원한 자기 존재-자기의 神-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Paul이 어둠속에서 경험하는 인식의 전부인 것이다.

‘To be rid of our individuality, which is our will, which is our effort—to live effortless, a kind of conscious sleep—that is very beautiful, I think ; that is our after life—our immortality.¹⁸⁾’

이와 같은 Paul의 말은 바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인간실존의 실상 그 자체로 생각된다. 그러나 반대로 이 Paul의 말을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로 받아들일 경우 문제는 이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Paul의 연인 Miriam의 경우를 본다면, 그녀는 Paul의 말을 매개로 하여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녀는 Paul처럼 자신이 어둠속에 들어가서 그 대상의 본질에 접하는 갈등은 결코 경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디까지나 자기를 지식과 교양을 쌓아 평범한 인간과 동일시되는 것을 거부하는 정신적인 여성으로 시종 일관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Morel부인의 삶에도 공통되는 밝은 빛의 세계에서 자신을 다듬는 것과 다름없다. Morel부인이 그랬던 것처럼 Miriam도 자기의 의지에 의해 이룩되는 ‘spiritual’의 측면을 고집하고 거기서 한발작도 물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앞에서 인용한 Paul의 「어둠」의 장면에서의 Miriam의 반응을 보

17) *Sons and Lovers*, p.350.

18) *Ibid.*, p.351.

아도 쉽게 알 수 있다. Paul과 함께 어둠속에 선 그녀의 혼(魂)은 실제로는 조금도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Miriam의 삶은 필연적으로 Paul의 정신성만을 기대하게 되고 이러한 속박때문에 두사람의 애정마저도 「추상적이며 고상한 차원 쪽」으로 기울어가고 만다. Paul에게는 Miriam이 육체적인 사랑의 충격에 견디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게만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종교적인 희생의 관념으로 자신의 육체를 생각하고 있다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

Paul의 편지는 이와 같은 두 사람의 사랑의 정돈상태를 말하고 있다.

You see, I can give you a spirit love, I have given it you this long, long time : but not embodied passion. See, you are a nun. I have given you what I would give a holy nun—as a mystic monk to a mystic nun.¹⁹⁾

이러한 정신과 육체의 균열이야말로 그들의 왜곡된 사랑의 모습인 것이다. 이것은 Miriam이 관념상으로 Paul의 욕망을 수준 높은 것과 낮은 것의 둘로 걸러서 취사선택한 결과인 것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Lawrence에게 있어서 인간의 삶은 全人的 삶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Paul이 Morel부인과 Miriam의 현실적 삶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구속감과 자기소멸적인 부재감으로 서서히 말려드는 것은 곧 자기자신의 全人的 삶에 대한 열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Ⅲ.

우리는 여기서 Paul이라는 한 인간의 내부에 두개의 서로 다른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됨을 주목하게 된다. 그 하나는 어머니와 Miriam에게 구현된 의지와 힘과 노력, 관념적인 사고가 목적하는 세계를 향한 상승운동이며, 다른 하나는 그 두 여인들로부터 버림받은 Paul의 살아있는 육체를 회복시키는 세계를 향한 하강운동이다. Paul이 어둠속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인식을 실제로 성취시켜 참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두개의 운동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자기가 취할 바를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19) *Ibid.*, p.307.

Paul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 것은 또 한 사람의 여성 Clara Daws이다.

여기서 Paul이 그녀와 공유하는 중요한 「어둠」의 장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녀에 관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녀가 처음부터 Miriam과는 대조적으로 육체적인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녀는 Paul의 존재를 육체적인 감각에 의해서 파악하고 있고 자신의 육체의 따스함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위안하는 것으로 Paul과의 애정관계가 전개되어 가는 것이다. Miriam이 차가운 정신의 흰 빛을 연상시키는 것과는 정반대로 Clara의 관능은 포근함을 지니고 있다. 그 관능을 통해 Paul은 생명의 세례(baptism of life)를 경험하게 된다.

It was for each of them an initiation and a satisfaction. To know their own nothingness, to know the tremendous living flood which carried them always, gave them rest within themselves. If so great a magnificent power could overwhelm them, identify them altogether with itself, so that they knew they were only grains in the tremendous heave that lifted every grass-blade its little height, and every tree, and living thing, then why fret about themselves? They could let themselves be carried by life, and they felt a sort of peace each in the other. There was a verification which had had together. Nothing could nullify it, nothing could take it away ; it was almost their belief in life.²⁰⁾

Baruck Hockman은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Paul은 존재의 확립을 통해 살아있는 우주와 접하고, 그 우주의 생명은 그의 생명에 접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적어 있는 이 생명관에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²¹⁾ 여기서 나타나 있는 상황은 바로 Paul이 Miriam과 공유한 어둠의 장면에서 인식하고 있던 인생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살아 있는 육체속에서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물론 여기서는 Paul이나 Clara는 둘 다 「개성」을 내던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다시말하면 Paul 개인으로서의 인격 혹은 Clara 개인으로서의 인격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소멸해 버리고 그들은 어둠속에서 자

20) *Ibid.*, pp.430-31.

21) Baruck Hockman, *Another Ego: The changing View of self and Society in the Work of D.H. Lawrence*(Columbia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70), p.34.

연과 더불어 생명에 충족되어 평안을 느끼는 것이다. 이때 그들은 이미 Paul이나 Clara가 아닌 「어떤 위대한 힘의 맹목적인 대리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After that the fire slowly went down. He felt more and more that his experience had been impersonal, and not Clara. He loved her, There was a big tenderness, as after a strong emotion they had known together ; but it was not she who could keep his soul steady. He had wanted her to be something she could not be.²²⁾

이 부분은 자칫하면 연인사이의 관능적인 경험으로 취급되어 관심을 끌지 못하기가 쉽다. 그러나 이 경험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간과해 버린다면 Paul이 도달하는 새로운 존재의 경지를 인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은 Clara와의 정열의 불꽃에 의한 세례를 통해서 Paul이 실현하고 있는 새로운 탄생이다. 여기에서는 생명의 세계에 눈뜬 Paul의 본래의 자기 모습—새로운 존재양식이 명료하게 시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본래의 자기야말로 Paul이 말하는 「자기의 神」에 다름 아니다.

Morel부인이 아기 Paul을 태양 빛에 들어 올린 저 기이한 의식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도 실로 이러한 상황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인용구에 의해서 Paul이 Clara에게도 개인성을 탈피한 본래의 자기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Clara의 경우 「어둠」속에서 생명에 접하고 생성되어가는 것은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생명의 물길은 그녀를 다시 종전의 상태에 버려두고 흘러가 버린다.

Lawrence가 말한 것처럼 Clara는 자기를 품고 있던 「뭔가 위대한 것」을 알아 버렸기에 그 순간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Paul과 Clara와의 존재위상의 차이가 이 어둠의 장면이 있고 난 직후부터 뚜렷이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Paul은 현존의 Clara에 의해서 나타나 는 그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反해서 Clara는 어디까지나 현재상태의 Paul에게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Clara는 Paul 내면의 위대한 생명의 부분을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그럴 뜻도 없다. 그녀가 Paul에게

22) *Sons and Lovers*, p. 431.

하는 말은 그러한 위상의 차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마침 내가 당신을 내것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흡사 당신이 전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든다.」²³⁾라는 말이 그것이다. 그러나 Paul에게 있어서 그녀와의 사랑은 소유하고 소유당하는 관계의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상대방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Paul이 Clara와 함께 있으면 마음대로 호홉할 수도 없고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있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배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Paul이 추구하는 사랑은 그러므로 그 사랑을 통해서 소유와 피소유의 관계를 초월한 차원에서 서로 상대하는 것이다. Paul이 사랑의 행위에 의해 경험하는 것은 자기로부터의 탈출인 것이다. 그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바람이 날리어 떨어져가는 나뭇잎과 같이 되어버린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바람에 날리어 떨어져가는 나뭇잎」이라는 것은 지성과 의지를 나타내는 표면적인 자아의 소멸을 의미한다.

Paul과 Clara와의 관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두 사람의 존재위상의 차이에 있음은 명백하다 하겠다. 이 점을 Lawrence는 「그녀로서는 그가 가자는 곳에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 끝맺고 있다. 그 두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는 상대인 것이다. 그래서 Clara는 남편 곁으로 돌아가고 Paul은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최대의 시련을 만나게 된다.

*Sons and Lovers*에서 Paul의 어머니의 죽음을 다룬 타이틀이 「해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미깊다. 어머니의 죽음은 Paul에게 결코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 그것은 Paul을 절대적으로 지배 내지 소유하려고 한 어머니로부터의 해방인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머니의 죽음은 지금까지의 그녀와 공유해 온 Paul자신의 생활의 붕괴라는 양면성을 그에게 부여하고 있다.

‘What am I doing?’

And out of the semi-intoxicated trance came the answer :

23) *Ibid.*, p.441.

‘Destroying myself.’

Then a dull, live feeling, gone in an instant, told him that it was wrong.

After a while, suddenly came the question :

‘Why wrong?’

Again there was no answer, but a stroke of hot stubbornness inside his chest resisted his own annihilation.²⁴⁾

자신을 파괴시킴으로써 어머니의 죽음에 동화하려고 하는 Paul의 영혼에 완강하게 반발하는 그의 생명있는 육체를 느끼게 한다. 스스로를 파괴시키고 자 하는 충동을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충동에서 결국 Paul을 구하는 것은 그의 육체의 저항인 것이다. 그것은 바로 Clara와의 관계에서 Paul이 느끼고 있던, 의지와 정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생명과 의식을 가진 육체임을 말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육체의 가치를 Paul이 자각하게 되었을 때는 그는 비로소 한 사람의 살아있는 남성으로서 소생하게 되고 어머니의 세계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실존을 향한 여행길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And his soul could not leave her, wherever she was. Now she was gone abroad into the night, and he was with her still. They were together. But yet there was his body, his chest, that leaned against the stile, his hands. on the wooden bar. They seemed something. Where was he?...

‘Mother!’ He whispered – ‘mother!’

She was the only thing that held him up, himself, amid all this. And she was gone, intermingled herself. He wanted her to touch him, have him alongside with her.

But no, he would not give in Turning sharply, he walked towards the city’s gold phosphorescence. His fists were shut, his mouth set fast.

He would not take that direction, to the darkness, to follow her. He walked towards the faintly humming, glowing town, quickly.²⁵⁾

24) *Ibid.*, pp.499–500.

25) *Ibid.*, pp.510–11.

IV.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Paul은 어머니 Morel부인이 추구한 삶과 Miriam의 정신적인 사랑과 Clara의 소유하고자 하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러나 그 어느 것에도 치우치거나 빠져들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생명추구에 충실하고자 고투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들 세 여인은 단편적인 삶과 자신의 편협한 관념의 세계에 사로잡혀 조금도 진전하거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 각자는 오로지 자신의 닫힌 세계속에서만 Paul과의 관계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Paul을 지배할 수 없었다.

아버지 Morel의 자기붕괴, Baxster Daws의 소외, Paul의 부재감 등은 모두가 여인들이 추구하는 사랑과 그 삶에서 희생당한 남성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Paul은 그러나 그러한 단편적이고 편협한 삶의 방식을 거부함으로써 그러한 비극에서 벗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Paul이 지향하는 세계는 탈인성적(impersonal)이고 자아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생명이 있는 존재인 것이다.

아들의 정서적 발전에 대한 모성애의 해로운 영향(the crippling effects of a mother)과 아들이 경험하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사랑 간의 분리(split)²⁶⁾로 인하여 나중에는 Paul이 죽음을 향해 표류하게 된다(drift towards death)²⁷⁾는 당초의 내용과는 다르게 “He walked towards the faintly humming, glowing town, quickly.”라고 소설을 끝냄으로써 Paul이 걸어온 역정으로 보아 소설의 의도와 실제 사이에 그 필연성이 결핍되고 있다²⁸⁾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 Lawrence가 Paul을 통해서 전개한 개인적인 성장의 추구, 그것은 결국 Lawrence가 Paul을 통해서 지향했던 자아의 추구였다고 할 것이다.

26) Mark Scholer, *Technique as Discovery in William J.Handy and Max Westbrook, Twentieth Century Criticism : the Major Statements*(New Delhi : Light and Life Pub., 1974), p. 77.

27) Harry T. Moor, *The Collected Letters of D.H. Lawrence*, Vol. 1(London : Heinemann, 1962), pp. 161 2. To Edward Garnett, from Villa Igea, Gargnano, Italy.

28) Mark Scholer, *op. cit.*, p. 78.

Abstract

A Study on the Pursuit of D.H.Lawrence's Self: (A) Paul's Self in Sons and Lovers

Park Jeong-gil

It has been said that D.H.Lawrence's greatness as a novelist rests ultimately on these three novels : *Sons and Lovers*, *The Rainbow*, and *Women in Love*. And the writer also agrees that it is Lawrence's best, and it has so much, so many aspects, of the essential in it.

The major themes of Lawrence's novels are well-known and have been exhaustively explored. But the mode of self, or the pursuit of self is rarely included among them. In relation to the theme of 'self', Lawrence expressed his ideas of the self in the non-fiction prose written in approximately the same period of his main novels. It contains some theories on the nature of the self, which can enrich our understanding of the novels.

In *Sons and Lovers*, *The Rainbow*, and *Women in Love*, the motif of self is continually employed as a means to portray another key of Lawrentian theme ; the balanced-relationships between the male and female. In *Sons and Lovers*. Lawrence treats Paul, the hero of the novel, as an ideal character. Actually Paul has the "non-human" element in humanity — in various manifestation, Paul Possesses not merely *strength*, but almost supernatural quality of strength — of which Lawrence spoken in his famous letter to Edward Garnett. Paul's love-making exhausts him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but he succeed in preparation himself for a full life of his own way, and also succeed in break away from the tie that strangling him.

Sons and Lovers contains a core of theory on the self, and the writer's commentary in this essay will be concentrated on how Mr. Paul comes to awaken to his own self-awareness and how to keep his self-identity against the strength of domineering mother and other women. He developed his mode

of self in all of the subsequent novels. In *The Rainbow*, Lawrence also draws various manifestations of the experimental self-mode. In *Women in Love* the writer finds the highest point the development of self-mode through the entire death-rebirth cycle. Here, Lawrence becomes more specific in his use of the nature of the self-identity.

In shor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get at the ground of Lawrence's vision on the Self which seems to be left for the ponder over this theme. To serve this, the writer begins his discussion from *Sons and Lovers*, and believes that this study will be able to provide to the readers with an opportunity to reflect what the authentic self images does D.H.Lawrence really want to draw in his novels.

